『대순사상논총』 제24-2집
대순사상학술원, 2015, pp.85~115

『전경』에 나타난 입문의례에 관한 연구

김 태 수
대순종교문화연구소・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천지공사와 종도(從徒)집단
Ⅲ. 입문의례의 과정
Ⅳ. 입문의례의 교학적 의미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모든 의례의 목적은 인간과 자연의 상태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의례를 통하여 인간은 삶의 양태나 개인의 정체성 변화를 추구하거나 확신하기도 하며, 자연환경의 특별한 변화를 도모하거나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변화를 방지하고자 하기도 한다. 인간의 경우 그 대상이나 주체가 개인이 되기도 하지만 집단인 경우도 있어서, 개인의 소망들을 이루기 위한 작은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단의 동요를 막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용하거나 집단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는 의례의 목적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수준의 균형 성취와 조직의 새로운 특질을 성취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1)]

1) Anthony F. C., 『종교인류학』, 김종석 옮김 (천안: 도서출판 아우내, 2010), p.123.

결국 의례는 인간이나 자연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례를 통하여 종교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한다면,[2] 종교의 목적도 또한 인간이나 세계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화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대순사상의 핵심 주제는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일 것이다. 이는 증산(甑山)이 20세기 초에 9년간 행한 구제의 역사(役事)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경』에 의하면 '천지인의 삼계를 개벽함'[3]으로써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는 일'[4]로서 세계와 인간의 변화를 추구한 종교적 행위이다. 개벽을 통한 변화의 추구는 선천(先天)이라는 부정적 현실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상극지리(相克之理)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원(冤)을 쌓아옴으로써 결국 진멸(盡滅)의 지경에 처하였다고 하는 당시 증산의 현실인식이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서 행해진 것이 천지공사이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구체적 행위는 주로 종교의례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 의례들을 통해 사안별로 각각의 공사가 처결된다. 그리고 이 개별 공사들의 총합이 바로 천지공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많은 종교적 의례들이 모여서 천지공사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5] 천지공사가 행해지는 형식의 본질은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종교의 주된 현상은 의례에 나타난다. 의례는 종교적 행위이다. … 의례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 종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칼날이 손잡이보다 유용하며 총의 총열이 개머리판에 우선하여 도구의 가치를 가지는 것과 같이 의례는 신화에 우선하여 종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종교가 하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로 의례이다."(같은 책, p.118.) 통과의례들은 변화 그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의례들은 아마도 모든 의례들의 종교적 의미, 즉 변형을 통한 실재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L. K. Dupre,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권수경 옮김 (서울: 서광사, 1996), pp.78-79.

3) 『전경』, 예시 5절. 이후 『전경』의 인용 표시는 장과 절로만 표시함.

4) 공사 1장 3절.

5) 김태수, 「천지공사에 나타난 의례적 성격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p.58-61 참조.

증산의 주관 하에 이뤄지는 이 천지공사에서 행해진 의례들의 대부분은 '종도(從徒)'라 지칭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하여졌다. 이 종도들은 공사의 참관자이면서 동시에 의례의 수행자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의례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례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6)]

본 논문의 관심은 천지공사의 의례 공동체로서의 종도집단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입문의례에 있다. 특히 이 의례가 통과의례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문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천지공사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여 그 교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례 공동체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입문할 때 행해지는 의례의 의미나 입문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천지공사의 방법론[7)]과 내용을 통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의례 공동체의 역할과 성격을 이해한 후에 이에 입문하는 과정에서의 의례들을 분석하여 이 입문의례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이 현대의 대순진리회에서 행해지는 입문의례인 입도식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도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방주네프(Arnold van Gennep)와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이론을 분석도구로서 일부 활용하고자 한다.

---

6) "상제께서 처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낱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 주셨도다."(교운 1장 2절)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종도 집단에 입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인식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정한 의례를 거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7) 천지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행의(行儀)에 있어서 형식구조의 핵심절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천지공사의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증산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는가 하는 것이 이념적 방법론이라 한다면, 천지공사의 행의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형식적 방법론이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천지공사의 형식구조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방법론'이라 하고자 한다.

천지공사 당시의 종도집단에의 입문의례를 단독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는 아직 없다. 단지 이경원이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을 다룬 논문 안에서 입도치성의 절차와 특징을 간략히 논하였는데, 이것이 대순사상 안에서 입문의례를 다룬 거의 유일한 연구 성과이다.

그런데 『전경』에는 입문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종도의 수는 매우 적으며,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 이 중 차경석(車京石)의 경우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하되 김석(金碩), 김영학(金永學) 등 다른 종도의 경우를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전경』의 교운 2장의 내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장에 등장하는 종도집단은 증산으로부터 천지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새롭게 형성된 집단으로서 천지공사 당시의 종도집단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Ⅱ. 천지공사와 종도(從徒)집단

종교적 입문의례를 통해 입문자는 수련의 기회, 또는 의례에의 참여자격이나 그 외의 일정한 종교적 권리를 회득하게 되고, 기존의 사회질서와는 다른 그 공동체만의 독특한 질서에 편입하여 그 곳에서 요구되어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입문의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문자들이 의례를 통해 소속되고자 하는 공동체의 성격이 우선 규정되어야 입문의례의 여러 과정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산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그를 따르던 종도들의 활동은 구제의 역사인 천지공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천지공사의 방법론적 체계와 그에 따른 공사 내용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여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도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전경』에 의하면 천지공사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는 일"[8]이며, 이 일은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하며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9]되는 것이다. 즉 상생(相生)의 도(道)로서 후천(後天)이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이루어서 창생을 구제하는 일이 천지공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예부터 쌓여온 원(冤)을 해소하는 해원(解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은 신도(神道)로부터 이루어진다. 해원이 신도로부터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도수(度數)를 조정하여 변하지 않게 확정하여 여기에 신명을 조화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창생을 구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그 형식적 방법론[10]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은 도수와 신도라고 할 수 있다. 언뜻 해원(解冤)을 통해서 선천의 포원(抱冤)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相生)으로써 후천의 선경을 이루기 때문에, 이 해원·상생의 개념들을 천지공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해원과 상생은

8) 공사 1장 3절.

9) 같은 책.

10) 천지공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공사에서 볼 수 있는 의례들을 주술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공사를 유사행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여 세계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예컨대, 문정호는 천지공사를 유감주술(類感呪術)로 보았다.(문정호, 「천지공사의 미의식적 이해」, 『증산사상연구』 2, 1976, p.218) 이러한 관점을 『증산사상연구』에 실린 많은 논문에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장병길은 역사(役事)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뜯는 역사, 짓는 역사, 묻는 역사의 세 가지 역사로 나누어 천지공사의 방법에 관하여 논한 바 있으며(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p.119-147 참조), 김탁은 천지공사의 방법론을 '생명사상, 인존사상, 진액사상, 의통사상'으로 정리한 바 있다.(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pp.110-138 참조)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천지공사의 내용의 분류나 사상적 특성을 들어 공사의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어서 천지공사의 형식적 방법론을 통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관점과는 다르다.

천지공사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선천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원상생이라는 이념적 지침을 가지고 선천의 문제를 해소하며, 후천선경을 이루어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해야 하는 것이다.[11] 따라서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서 세계를 변혁하는 직접적인 방법론은 '도수의 조정'과 '신명의 조화'라고 하겠다. 따라서 도수와 신도를 중심으로 공사의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이 공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공동체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수를 조정하고 신명을 조화하는데 있어서 종도라고 하는 의례 공동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수라는 용어는 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되어 있는 규칙을 뜻하거나, 계량의 표준이나 규칙・도리(道理) 등의 뜻으로 사용되어왔다.[12] 그런데 천지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보다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경』을 통해서 볼 때 매우 많은 종류의 공사에서 도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13] 이들은 그 도수에 부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상극지리(相克之理)로 인

---

11)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예시 73절)라는 내용을 볼 때 천지공사의 형식적 방법론은 더욱 명확해진다.

12) 도수는 도(度)를 단위로 계산하여 얻어진 수치로서(『周禮, 天宮, 小宰』 其屬六十.「鄭玄注」 六宮之屬, 三百六十, 象天地四時・日月星辰之度數.「賈公彥疏」 周天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擧全數亦得云三百六十也.) 황도(黃道)를 기준으로 하늘의 별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이다. 즉 28수(宿)의 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되어 있는 규칙을 뜻한다.(『顔氏家訓, 歸心』 日月五星・二十八宿, 各有度數.) 이것이 인간사회에서는 계량의 표준이나 규칙, 도리(道理)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周禮, 春官, 墓大夫』 令國民族葬, 而掌其禁令. 正其位, 掌其度數.「鄭玄注」 度數, 爵等之大小.) 이러한 인식 하에 때로는 이 도수가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인간사가 어지러워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商子, 錯法』 法無度數, 而事日煩. 則法立而治亂矣.)

13) 백의군왕・백의장군 도수(행록 3장 52절, 53절), 독조사 도수(행록 3장 65절), 음양도수・정음정양도수(공사 2장 16절) 문왕의 도수・이윤의 도수(공사 2장 16절), 해원도수(공사 3장 17절), 무당도수(공사 3장 33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교법 2장 55절), 상극도수(예시 10절), 선기옥형 도수, 저울 갈고리 도수, 추도수, 끈도수, 일월대어명 도수, 천지대팔문 도수(예시 31절), 헛도수(예시 53절), 선천도수(공사 2장 3절), 후천 5만년의 도수(교운 2장 11절) 등이 그것인데, 이 이외에도 매우 많은 공사의 도수가 등장한다.

하여 그릇되어진 도수는 사제간(師弟間)에 하극상의 현상을 일어나게 하여 비윤리적 인간행위의 근거로서 작용하기도 하며,[14] 자연현상을 조정하여 농사의 작황을 결정하기도 한다.[15] 공사를 통해 도수가 만들어지고, 그 도수는 천지가 그에 따라 운행되는 법칙 또는 원리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도수의 의미는 천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인간사와 자연현상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변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자연 현상을 운행하는 주체가 신(神)이라고 한다면,[16] 신의 도(道)로서의 신도(神道)가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작용을 통해 공사의 결정에 따라 선천세계를 극복하고 후천의 선경(仙境)세계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원리이다. 이 때 신이 작용하는 절대 규칙이 되는 것이 도수라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천지공사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론적 개념이 변화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도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도수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도수에 따라 세계는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의 원리를 조정하여 형이하의 현상을

---

14) 교법 3장 34절,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15) "종도들이 二월의 따뜻한 어느 날 상제와 함께 보리밭 길을 지날 때 「이 세상에 빈부의 차별이 있는지라. 곡식 중에 보리가 있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보리를 없애야 먹는 데에나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리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니라. 상제께서 이야기를 수긍하시는 태도를 취하셨도다."(행록 4장 10절), "四월에 들어 심한 가뭄으로 보리가 타니 농민들의 근심이 극심하여지는도다. 종도들도 굶을 걱정을 서로 나누니 상제께서 「전일에 너희들이 보리를 없애버림이 옳다 하고 이제 다시 보리 흉년을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농담 한 마디라도 도수에 박혀 천지에 울려 퍼지니 이후부터 범사에 실없이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전주 용머리 고개 김 낙범에게 들러 거친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보고 「빈민의 음식이 이러하니라」고 하시면서 다 잡수셨도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큰 비가 내리니 말라죽던 보리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도다."(행록 4장 15절)에서 도수가 천지에 영향을 미쳐 보리농사의 작황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16) 교운 1장 44절, "左旋 四三八 天地魍魎主張 九五一 日月竈王主張 二七六 星辰七星主張"

17) 예시 73절,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변화시킨다는 것으로서 천지공사의 방법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수는 천지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개별 공사들을 통해 정해지는데, 그 공사들은 여러 의례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예컨대 '금강산 공사'의 경우, ① 백지 12,000장에 '시(侍)'자를 써서 사방의 벽에 붙이기, ②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24그릇에 나누어 담고 칠성경 3・7편 염송하기,[18] ③ 양의 피를 12,000 시(侍)자에 바르기, ④ 청수를 담았던 사기 그릇을 김제로 옮기기,[19] ⑤ 삭발할 것을 말하고 중을 초청하기[20] 등 다섯 가지 의례를 담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하나의 공사에서 한 가지의 도수가 형성되기도 하며, 하나의 공사에 두 가지 이상의 도수가 형성되기도 한다.[21] 이렇게 하나 이상의 의례들이 모여

---

18) 공사 2장 13절, "상제께서 농암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허 미수(許眉叟)가 중수한 성천(成川) 강선루(降仙樓)의 일만이천 고물은 녹줄이 붙어 있고 금강산(金剛山) 일만이천 봉은 겁기가 붙어 있으니 이제 그 겁기를 제거하리라」 하시고 「네가 김 광찬・신 원일과 함께 백지 일 방촌씩 오려서 시(侍) 자를 써서 네 벽에 붙이되 한 사람이 하루 四百자씩 열흘에 쓰라. 그리고 그 동안 조석으로 청수 한 동이씩 길어 스물네 그릇으로 나누어 놓고 밤에 칠성경(七星經) 三七편을 염송하라」 명하시니라. 형렬은 그 명을 좇았으되 신 원일이 즐거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는 「정읍 이 도삼을 불러서 행하라」 분부하시니라. 형렬은 그를 데려다가 열흘 동안 분부대로 행한 후에 김 갑칠을 보내어 일을 마쳤음을 상제께 아뢰게 하였더니 상제께서 갑칠에게 양(羊) 한 마리를 사주며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라」고 이르셨도다."

19) 공사 2장 14절, "상제께서 十一월에 사기를 옮기는 공사를 보시고자 동곡에 돌아오셔서 전일에 주었던 양을 잡게 하고 그 양 피를 손가락 끝에 묻혀 일만 이천 시(侍)란 글자에 바르시니 양 피가 다한지라. 상제께서 「사기(沙器)를 김제(金堤)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김제 수각(水閣) 임 상옥(林相玉)이 왔기에 상제께서 청수를 담던 사기 그릇을 개장국에 씻어 그에게 주시니라. 그는 영문을 모르고 주시는 대로 그 그릇을 받았도다. 그는 며칠 후에 그 사기그릇의 용처를 여쭈었더니 「인부를 많이 모아 일할 때 쓰라」 하셨도다."

20) 공사 2장 15절, "상제께서 十一월에 동곡에 머무시면서 금강산 공사를 보시고 형렬에게 「내가 삭발하리니 너도 나를 따라 삭발하라」고 분부하시니 형렬이 속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득이 응낙하니라. 또 갑칠을 불러 「내가 삭발하리니 내일 대원사에 가서 중 금곡을 불러오라」 하시므로 형렬은 크게 근심하였으되 이튿날 다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었도다."

21) 공사 2장 16절, "상제께서 어느 날 후천에서의 음양 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 공신을 돌아보시며 「경석은 열둘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요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시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서 각각의 개별 공사가 처결되고, 이 개별공사들에서 도수들이 형성되며, 이 개별공사들의 총합이 천지공사라고 할 수 있다.[22]

각각의 공사를 처결하기 위한 의례들을 행할 때 증산께서는 반드시 신명을 불러서 참여케 하셨다.[23] 이는 사안(事案)의 관계자와 함께 공의(公議)를 한다는, '공사'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신과 함께 공의를 하는 것은 '귀신이 진리에 지극'하여 공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사로움의 개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24] 이렇게 공정한 과정을 거친 공사의 결과로 도출되는 도수는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증산께서는 천지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사의 과정과 결과를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각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그를 따르는 종도에게 공사를 참관케 하고, 그 내용의 조항들을 일일이 되묻고 확인하여 그들이 공사의 결정을 확신하게 하였다.[25]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공사를 통한 도수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

22) 김태수, 앞의 글, p.61. 사안에 따라 특별한 도수의 형성 없이 즉각적으로 자연이나 인간사회의 현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날씨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치병의 사례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는 하나 따로 분석하여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논문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23) 이와 관련된 『전경』의 내용을 보면, "날마다 백지 두서너 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그림(符)을 그려 손이나 무우에 먹물을 묻혀 그것들에 찍고 불사르셨도다. 그 뜻을 종도들이 여쭈어 물으니 「그것은 천지공사에 신명을 부르는 부호이노라」고 알려 주셨도다."(공사 1장 10절); "이 공사에 천지 대신명이 모였으니"(교법 3장 18절); "상제께서 대신명(大神明)이 들어설 때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예를 갖추셨도다."(공사 2장 5절); "덕겸이 신기하게 느껴 「어찌 개가 일제히 짖나이까」라고 여쭈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대신명(大神明)이 오는 까닭이니라.」 그가 「무슨 신명이니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시두손님이니 천자국(天子國)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나니라」고 일러 주셨도다.(행록 4장 8절); "오늘 호소신이 올 것이니 너희는 웃지 말라. 만일 너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웃으면 그 신명이 공사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갈 것이고 그가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지 모를 일이니 깊이 명심하고 주의하라."(공사 1장 16절);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교운 1장 8절) 등 다수가 나타난다.

24) 교운 1장 19절,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25) 교운 1장 8절,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그 참관한 공사의 조항을 일일이 묻고 그 본 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셨도다. 이로써 상제께서 자신을

의 참여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천지공사의 주체는 삼계의 대권을 주제하는 상제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스스로 자임한 인간 강증산이다. 그가 세계의 변화를 공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공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공사라고 하는 형식적 특성상 일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종도들은 이렇게 천지공사의 의례에 직접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례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에 속한 종도들은 공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사의 과정을 참관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며 확신하여, 그것의 의미를 타인들에게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26] 의례의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공사를 통한 세계의 변화를 확신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증산의 화천(化天) 이후에 그를 신앙하는 종단들의 경전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형성되며 체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의례를 참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례에 직접 참여하였다.[27] 의례에 참여하는 형태는 그 참여 방식에 따라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증산께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의례의 준비와 과

좇는 무리들에게 공사의 확신을 얻게 하셨도다."

26) 교운 1장 64절, "공우가 三년 동안 상제를 모시고 천지공사에 여러 번 수종을 들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마다 그는 「각처의 종도들에게 순회·연포 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 일이 곧 천지의 대순이라」는 말씀을 들었도다."

27) 종도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한 공사의 예로 대순진리회의 수도 법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문인 태을주(太乙呪)와 관련된 다음의 공사가 있다. "… 종이에 태을주와 김 경흔(金京訢)이라 써서 붙이고 일어서서 절하며 「내가 김 경흔으로부터 받았노라」 하시고 칼·붓·먹·부채 한 개씩을 반석 위에 벌여 놓으셨도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뜻이 가는 대로 집으라」 하시니 류 찬명은 칼을, 김 형렬은 부채를, 김 자현은 먹을, 한 공숙은 붓을 집으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네 종도를 약방 네 구석에 각각 앉히고 자신은 방 가운데 서시고 「二七六 九五一 四三八」을 한 번 외우시고 종도 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를 종이돈과 같이 자르게 하고 그것을 벼룻집 속에 채워 넣고 남은 한 사람을 시켜 한 쪽씩 끄집어낼 때 「등우(鄧禹)」를 부르고 끄집어낸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 또 그 종이쪽을 받는 사람도 역시 「등우(鄧禹)」를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받은 그 사람은 「청국지면(淸國知面)」이라 읽고 다시 먼저와 같이 반복하여 「마성(馬成)」을 부르고 다음에 「일본지면(日本知面)」이라 읽고 또 그와 같이 재삼 반복하여 「오한(吳漢)」을 부르고 다음에 「조선지면(朝鮮知面)」이라 읽게 하시니라.…"(공사 3장 28절) 이외에도 종도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한 내용이 『전경』에 매우 다양하게 보인다.

정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또 다른 방식은 증산께서 공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종도들에게 묻거나 선택하게 하여 공사를 처결하는데 직접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증산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도들이 공사에 참여하여 의례의 과정에서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때 종도들은 증산께서 그 공사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기 전에는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아무런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 공사의 의미를 종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도들도 그것이 어떤 공사인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추측을 할 뿐이다.[28] 이러한 경우 종도들은 자발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의례의 수행에 있어서는 증산의 지시에 따라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의 의례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의 참여가 후자의 경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후자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증산의 물음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공사의 처결에 참여하거나, 증산께서 제시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대로 의사를 표현한다. 이 때 종도들의 의견은 공사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진다. 이 경우는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사례가 적은데, 중국의 해원과 관련한 공사,[29] 조선을 일본에 맡기는 공사,[30] 후천 음양도수 공사,[31] 후천 오만년 첫 공사,[32] 문명이기 공사[33] 등이 그것이다. 앞의 두 건의 공사는 각 나라

28) 증산께서는 천지공사를 진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공사의 의의를 종도들에게 알려주셨다. 예컨대, 최수운과 전명숙의 해원공사(공사 3장 2절)·단주와 진묵의 해원공사(공사 3장 6절) 등이나, 매화공사(공사 3장 1절)·물화상통공사(공사 2장 23절)·기차기운을 돌리는 공사(공사 3장 27절)·전쟁과 관련된 공사(공사 2장 25절) 등이 그것들이다. 이 이외에도 『전경』에는 수많은 공사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공사의 명칭들은 모두 증산께서 종도들에게 일러줌으로써 지금에 전해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공사의 정확한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진묵의 초혼으로 추측되는 공사(공사 1장 15절) 같은 것이 그 예이다.

29) 공사 3장 18절.

30) 공사 1장 12절.

31) 공사 2장 16절.

32) 공사 2장 17절.

33) 공사 1장 35절.

의 국운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중국의 해원과 더불어서 조선의 안위를 도모하는 공사이며, 후천 음양도수의 공사는 음양의 작용에 있어서 후천의 새로운 원리를 설정하는 공사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이후 인간의 구체적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천지공사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종도들은 공사의 의례에서 인류의 삶의 양태를 결정하는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도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대부분 먼저 특별한 주문을 송독하는 수련을 하거나, 금기를 지키도록 지시받았다. 중국해원공사에 참여하였던 신원일과 최덕겸은 7일간 작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금기 속에서 중국의 일을 재판하도록 하였으며, 후천 음양도수를 조정하는 공사에서는 황응종 외 4명의 종도들이 오주(五呪)[34]를 수련한 후에 증산과의 문답을 통한 공사의 처결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종도들은 공사를 처결하기 전에 마음을 침잠시키고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의례(淨化儀禮, rite of purification)를 거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천지공사가 질곡의 현실을 타계하고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므로 이 일의 종교적 엄중성만큼이나 의례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는 마음의 정화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화가 신명과 함께 천지공사를 처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종도들은 이렇게 천지공사에서 인간 스스로 미래의 일을 결정하는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성숙을 위한 수행(修行)도 하는 공동체였다. 이들의 수행방법은 크게 일상에서의 도덕적 성숙을 위한 실천과 주문수련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산께서는 종

34) 교운 1장 30절, "…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新天地家家長歲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

도들에게 많은 도덕적 교훈을 가르쳤는데, 『전경』에는 주로 '교법편'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35] 종도들은 이 가르침을 수도(修道)의 차원에서 지키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도덕적 실천의 내용은 주로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선천의 상극적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후천의 윤리·도덕의 실천을 지향한 것이다.

주문수련의 경우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수련을 한 것과 더불어서, 김형렬에게 심법을 전수한 것 등 모두 오주(五呪)를 송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대학상장(大學上章)이나 서전서문(書傳序文), 칠성경(七星經) 등을 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문수련은 신명과의 조화(調化)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천지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수의 조정과 함께 중요하게 제시되어진 형식적 조건은 신명을 조화하는 것이므로, 공사에 함께 참여하여 사안들을 처결하는 데 필요한 의례적 수행을 하는 종도들도 신명과 조화하는 과정은 필수적이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이는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으로, 공사의 과정에서 종도들에게 항상 정심(正心)을 명한 것[36]을 보아서도 신명과의 조화와 주문의 수련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의 실천과 주문의 수련은 결국 도통(道通)이라고 하는 궁극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종도들은 공사의 의례에 참여하여 각각의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처결 이후에 형성되어진 도수를 감당하여 그 도수가 실현되는 데에도 일부 참여하였다. 예컨대 앞에 약술한 후천 음양도수를 조정하는 공사에서 증산께서 문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라

35) 예컨대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교법 1장 2절),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교법 1장 10절),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지 위치에 의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교법 3장 18절),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교법 1장 56절) 등이다.

36) 교법 3장 8절, "공사를 행하실 때나 또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하시고 머무르실 때에는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을 명하시고 혹 방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보신 듯이 마음을 거두라고 명하셨도다."

고 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이 있는 도수인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종도로 하여금 공사에서 결정된 도수를 '잘 견디어 받고' 또 '맡으라'고 지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수를 '받고' '맡는'다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 도수가 앞으로 시현되는데 있어서 인간인 종도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수가 시현되는 과정에서 이 종도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전경』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공사 이후에 공사의 처결 사항을 종도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차경석의 경우에서 보인다. 이는 문공신의 경우와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차경석이 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 상제께서 十二월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시고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광찬·내성은 대흥리로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 공신·황 응종·신 경수 들에게 가라사대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 주시고 또 「본래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十二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들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아지리라. 풀어 두어야 후천에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맺으셨도다.[37]

37) 공사 2장 19절.

이 공사는 후천의 평화로운 정사를 위해서 동학에 참여했던 신명들을 해원하는 공사이다. 그런데 이들의 해원이 차경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의 도수를 결정한 것이다. 즉 공사에서 처결된 도수가 종도를 통해 실현될 것이 예언되어진 것이다.[38] 이처럼 일부 도수의 경우는 종도들이 직접 그 도수를 감당하여 그 도수가 현실화 되어지는 과정에도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종도들은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의례 공동체로서, 공사의 의례를 참관하기도 하고 공사의 사안을 직접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도통을 목적으로 수도를 하는 수행자 공동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사의 결과로 도출된 도수를 실현시키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Ⅲ. 입문의례의 과정

천지공사 당시의 의례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종도집단에 입문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김석(金碩), 차경석(車京石), 김영학(金永學)의 약 세건 정도로 사례의 수가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의 기술도 자세하지 않아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중에서 그나마 비교적 자세하게 입문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차경석의 경우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입문의례의 과정을 분석하되 나머지 두 사례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그 과정을 분석한다.

차경석은 1907년부터 증산을 따르게 되었는데, 1909년에 천지공사를 마치고 화천(化天)한 것을 보면 비교적 늦게 입문하였다고 할 수

38) 동학신명의 해원이 이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차경석이 자신의 교단에서 60방주제를 시행하고, 1921년에 천자(天子)에 등극하는 고천제(告天祭)를 지내고 '시국(時國)'이라는 국호를 선포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이 해원의 도수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서울: 대흥기획, 1992), pp.242-245 참조.

있다. 그가 증산을 처음 만난 것은 전북 원평 부근의 한 주막에서였는데, 첫 대면에서 강증산이란 인물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임을 간파하고 자신이 진행 중인 송사의 내용을 알려 판단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일의 곡직(曲直)은 어떠하든지 송사 자체는 이익을 다투는 일이므로 대인이 행할 바가 아님을 지적하고, 살기(殺氣)를 버리고 활인지기(活人之氣)를 찾으라는 권유를 듣고 감동하여 그는 증산을 따를 것을 결심하였다.[39] 이후 그는 증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르면서 문하에 들것을 요청하여, 결국 입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의『전경』구절이 바로 그 과정의 일부 내용이다.

> 경석이 그 물방아집에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상제께 정읍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되 상제께서 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능욕하시기도 하고 구축도 하여 보셨느니라. 그래도 경석은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그럼 네가 나를 꼭 따르려거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가 하라는 일에만 전력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六월 초하루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고 이르시니 그는 곧 돌아가서 가사를 대략 정리하고 그 날짜에 용암리에 다시 와서 상제께 배알하고 정읍으로 가시기를 또 청하는도다. 상제께서 불응하시다가 사흘 후에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이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헤엄쳐서 겨우 발목이 닿는 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고 하셨도다.[40]

증산이 차경석을 능욕하거나 쫓아내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문하에 드는 것을 포기하도록 의도한 것은, 종도들이 천거한 부자(富者)가 증산을 따르려고 찾아왔을 때 괴로워하며 되

39) 행록 3장 37절.
40) 행록 3장 38절.

도록 그를 문하로 받아들이려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증산의 언설에 의하면 부자들은 그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큼의 많은 살기를 안고 있으므로, 그들이 문하에 들어오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천하를 구제하는 공사(公事)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그들을 문하에 들이는 것을 되도록 피하였다.[41] 차경석의 입문을 허락한 후에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의미로 해석된다. 차경석은 부자는 아니었으나, 증산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가 지닌 살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살기는 소송의 상대자에 대한 살기 뿐 아니라 부친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살기도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서,[42] 경석의 살기는 부자의 살기를 해소하여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산의 신성함을 알아보고 따르려는 의지가 강한 자에게는 부득불 허락하였고, 경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증산이 차경석의 입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구제의 역사(役事)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석의 의지를 시험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43] 전술하였듯이 천지공사는 선천의 상극적 구조와 포원(抱冤)의 상황을

41) 행록 4장 48절, "종도들이 때때로 부자를 종도로 천거하면 상제께서 이것을 제일 괴로워하시니라. 종도들이 천거한 부자가 상제를 찾아오면 상제께서 먼저 그 사람이 오는 길가의 주막에 가셔서 그를 만나 횡설수설하셔서 그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도다. 종도들이 이 일을 항상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참에 그 연고를 여쭈니 가라사대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자에게 살기가 붙어있느니라. 만일 그런 자를 문하에 둔다면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그 앞길을 맑게 해 주어야 할 터이니 그러자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오느니라.」"

42) 교법 3장 15절, "또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三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을 어느 모해자가 밀고함으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43) 입문자에 대한 스승의 시험은 여러 종교들에서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딴뜨리즘(Tantricism)의 입문식인 딕샤(dīkṣā)의 경우에도 스승은 먼저 입문자의 영적 자질을 살펴보는데, 이때 입문자는 스승의 집에 거하면서 몇 년간의 시험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신재은, 「한국 무교와 인도 딴뜨리시즘 입사의례의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의의」, 『비교민속학』 19 (2000), p.219.

극복하고 해원상생을 지향한다. 상생의 취지로 이루어지는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종도들에게 증산은 호생의 덕을 강조하고 평화를 주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석에게도 상극적 살기를 버리고 과감하게 활인지기를 찾을 수 있는 의지를 세울 것을 교훈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에 대해 시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물방앗간에 있는 동안 열흘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석은 이 과정에서 매우 괴로워하였다.

이후 증산은 차경석이 입문하는 조건으로 가사(家事)를 정리하고 올 것을 제시하였고 경석은 이 조건을 받아들여 가사를 정리한 후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증산을 추종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일상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방주네프가 분석한 통과의례의 연쇄적 단계 중 '분리(separ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44] 이 분리 단계에서 입문자는 하나의 단계 혹은 상태에서 다음의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이전 상태로부터 상징적으로 분리시키는 의례 과정을 밟게 된다.[45] 이러한 분리는 입문자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며, 이 죽음은 새로운 자아로서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 경석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생활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 이후에도 경석은 계속 증산으로부터 입문에 대한 허가의 확답을 얻지 못하고 리미널한(liminal)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과거와의 단절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집단에 아직 속하지 못한, 경계적

44) 방주네프(Arnold van Gennep)는 사회적 지위(地位)나 시공간적 위치(位置)의 변화에 따른 의례와 계절적 변화나 순환 주기에서 행해지는 통과의례들을 분석하여 이들 의례의 단계를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간 단계인 전이 단계의 이도 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n) 경계적(liminal) 상태를 매우 중요한 통과의례의 특징으로 삼아서, 이전 세계에서 분리되는 의례는 '전역치 의례(preliminal rites)', 전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역치 의례(liminal rites)',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통합하는 의식은 '후역치 의례(postliminal rites)'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Arnold van Gennep, 『통과의례』, 김경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85), pp.40-41 참조.

45) 그러나 이 분리된 상태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이 중간 상태에 있음을 상징하는 과도기적 의례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됨을 상징하는 결합의 의례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상복・이문웅・김광억 공저,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p.280.

(betwixt and between)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종도집단에 입문하는 것이 허락된 것은 그로부터 3일 후이다. 리미널리티(liminality)를 특징으로 하는 전이(transition) 단계에서는 특별한 금기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차경석의 경우는 단지 증산을 정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계속 청하면서 입문에 대한 허락을 받고자 노력하는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3일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사회집단에서 천지공사의 의례 공동체로 편입하기 위한 중간 경계를 지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산으로부터 입문을 허락받은 이후에 차경석은 이때부터 의례 공동체에 통합(incorporation)하는 과정을 거친다.

> 또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三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을 어느 모해자가 밀고함으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시니라. 경석이 세 아우와 함께 옆방에 모여 서로 원심을 풀기로 정하고 상제께 고하니 상제께서 「그러면 뜰 밑에 짚을 펴고 청수 한 동이를 떠다 놓은 후 그 청수를 향하여 너의 부친을 대한 듯이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하라」 하시니 경석의 네 형제가 명을 좇아 행하는데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 방성대곡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의 부친은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을 괴로워하니 그만 울음을 그치라」 이르시니라. 그 후에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千古春秋阿房宮 萬方日月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46]

46) 교법 3장 15절.

앞에 언급하였듯이 차경석은 동학농민군에서 간부를 맡았던 부친을 밀고하여 결국 사형에 처하게 만든 자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증산께서는 그가 지닌 원한의 마음을 풀어 살기를 없애도록 하는 의례를 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과거의 원한 맺힌 사건의 이야기를 표면화함으로써 이 일로 인하여 생긴 복수의 감정이 드러나도록 하여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 다음 청수를 떠 놓고 피해의 당사자인 부친의 신(神)이 있음을 상정하고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뜻을 포기하고 마음을 돌렸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뜻을 확고히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은 경석이 지닌 살기를 없애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원한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종의 정화의례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청수는 종교적 의미의 '물'이 갖는 상징의 전형을 보여준다. 즉 청수는 과거의 살기 가득한 마음을 죽임과 동시에 새로운 상생의 마음으로의 재생을 이룸으로써 입문자를 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례는 입문자가 의례 공동체에 통합되기 위해 선행되어지는 정화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입문자는 종교적이고 실존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진시황(秦始皇)과 조조(曹操)의 고사와 관련된 문구를 일러주어서, 항상 그것을 마음에 담고 허망한 욕심을 스스로 경계하도록 한 내용은 입문자가 앞으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해 준 것으로 이해된다. 즉 차경석이 종도집단에 입문하여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대강의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을 완수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석에게 대강의 규범이 주어지는 또 다른 의례가 『전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경석에게 특화된 강령(綱領)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 훗날에 상제께서 경석을 보시고 「너는 강령을 받아야 하리라」 하시고 「원황정기 내합아신(元皇正氣來合我身)」의 글귀를 읽게 하신 후에 문을 조금 열으시니 경석이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방성대곡하는지라. 상제께서 일각쯤 지나서 울음을 그치게 하셨도다.47)

위의 의례 내용에 의하면 증산이 경석으로 하여금 '원황정기 내합아신'의 글귀를, 주문을 송독하듯이 반복해서 읽도록 하였다. 이 반복적 송독을 통하여 경석은 '원황정기'라는 강령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석은 내면적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경석의 울음은 강령을 수용함으로써 마음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상징적 표상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렇게 주문을 송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입문의례의 예를 김석(金碩)의 '입도(入道)의례'에서 볼 수 있다.48) 이 의례는 차경석의 경우와 달리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 비교적 정형화되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입문자 본인 이외에 김광찬과 김형렬이 참여하는데, 이 두 사람이 좌우에 위치하여 청수를 앞에 놓고 태을주(太乙呪)를 21회 송독한 후 입문자인 김석이 이어서 송독하는 것으로 입문의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례에 대한 기록에서는 전후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수가 갖는 종교적 상징의 사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이를 앞에 두고 행해진 주문 송독은 정화의식이 주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을주가 현재 대순진리회의 기도의례나 치성의례 등 여러 의례에 사용된다는 면을 반추하여 추론할 때 이 의례에서 주문의 송독은 맹세나 발원(發願)의 의미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위한 정화의례의 또 다른 예는 김영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김영학은 김경학의 천거로 종도집단에 입문하는데, 그는 살인으로

---

47) 행록 3장 39절.

48) 교운 1장 18절, "그 후 광찬(光贊)과 형렬(亨烈)이 상제와 함께 전주(全州)에 동행하였느니라. 김 석(金碩)이란 자가 문하에 입도하게 되었도다. 입도에 앞서 상제께서 광찬과 형렬을 좌우에 두고 청수를 앞에 놓고 두 사람에게 태을주(太乙呪)를 스물 한번 읽게 하신 후에 석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도다."

인하여 몸에 있게 된 두 척신(感神)을 물리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49] 살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거의 은원관계(恩怨關係)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입문과정에서 종도집단에 통합을 위한 일종의 정화의례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상 차경석의 입문과정을 정리하면, 그는 주막에서 증산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물방앗간에서까지 입문의 자격을 시험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은 과거와의 분리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리미널한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물방앗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도 또한 마을 밖에 있는 장소로서 마치 원시부족의 성인식에 입문자들의 사례를 연상케 하는 리미널한 장소이다.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경석은 가사를 정리하고 오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과거와의 상징적인 단절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입문자인 경석은 전이 단계의 경계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후 통합의 의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때 정화의례와 함께 종도집단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의 대강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종도집단에 통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50]

---

49) 행록 4장 47절, “이후에 백암리에서 상제를 박 공우와 신 원일이 모시고 있었도다. 이때 종도 김 경학의 천거로 김 영학(金永學)이 상제를 배알하였을 뿐 상제께서 이레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도다. 영학이 매우 불만을 품기에 공우와 원일이 그에게 「그대가 상제께 삼가 사사하기를 청하면 빨리 가르쳐 주시리라」고 일러주니 그때야 그는 사사하기를 청하니 상제로부터 승낙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상제께서 갑자기 그를 꾸중하시는도다. 영학은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문밖으로 나가니라. 상제께서 영학을 불러들여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 하는 것이니 과히 불만을 사지 말라」고 타이르셨도다. 영학이 「무슨 척이니까. 깨닫지 못하겠나이다」고 되물은즉 「너는 열여덟 살 때 살인하고 금년에 또 살인하였나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회상을 촉구하시니 그는 옛일을 더듬었도다. 「그 나이 때에 제가 남원(南原)에서 전주 아전과 말다툼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에 분격하여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것으로써 신음하다가 그 이듬해 三월에 죽었나이다. 또 금년 봄에 장성(長城) 다동(多洞)에서 사는 외숙인 김 요선(金堯善)이 의병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여 의병대장 김 영백(金永白)을 장성 백양사(長城白羊寺)로 찾아가서 그 비행을 꾸짖으니 그 대장은 외숙에게 사과하고 그 의병을 찾아 총살하였나이다」고 영학이 이 두 가지 일을 아뢰었도다.”

50) 이후 경석은 증산과 함께 선묘의 혈음을 옮기는 의례(행록 3장 41절), 율곡의 시를 읽어주는 의례(행록 3장 47절) 등 개인적인 의례를 몇 차례 더 하게 되는데 이 의례들은 그 의미해석이 난해하거나 입문과정에서의 의례라고하기에는 시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Ⅳ. 입문의례의 교학적 의미

본 장에서는 전술한 입문의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입문자에게 요구되어진 사항들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갖는 교학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입문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것은 일정한 시험의 과정이었다. 차경석의 경우 용암리 주막에서의 첫 만남에서 이미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때의 시험은 증산의 비범함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 이는 증산을 따르려는 마음의 의지를 세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증산의 문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낸다는 것은 소소한 일상에서 벗어나 대의를 따르겠다는 마음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증산께서 김형렬에게 "망하려는 세간살이를 아낌없이 버리고 새로운 배포를 차리라."[51]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증산을 따라 종도집단에 합류하는 기초적인 자세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물방앗집에서 두 번째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차경석은 조촐한 식사와 범절에 매우 괴로워하였을 뿐 아니라 증산께서는 그를 능욕하거나 구축하는 등 그의 입문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의를 위해 심신의 고통을 감수하며 증산을 신뢰하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그가 세운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의지를 강하게 하는 과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52]

---

51) 교법 1장 8절.

52) 행록 3장 50절, "상제께서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여 종도들에게 일러준 하늘이 고통을 통하여 인간을 성숙시킨다는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차경석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제가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맹자(孟子)

이 후 경석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사를 정리하고 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분리의 과정이다. 이 분리는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종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천지공사의 내용구조로 파악한다면 후천의 상생을 지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기존의 상극적 관습에 젖어있던 자신을 버리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극적 관습에서 벗어나서 상생을 지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는 통합을 위한 정화의례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경석이 가진 복수심을 없애는 의례의 과정이 그것이다. 복수는 '피로 피를 씻는 것'[53]과 같이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상극적 관습의 대표적 소산이다. 천지공사는 상극의 선천을 극복하고 상생의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종도집단에게도 상극의 관습을 버리고 상생의 윤리를 실천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복수심을 없애는 의례는 이러한 종도집단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문하는 종도들에게 과거의 모든 허물을 반성하고 뉘우쳐 사하여 줄 것을 기도한 후, 일절 생각하지 말도록 요구되어지기도 하였다.[54]

특히 천지공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특별히 '순결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하는 증산의 언설[55]과 천지공사의 의례에 종도들이 참여할 때에 여러 가지 금기와 수련을 시행한 것을 볼 때 종도집단에 입문하여 공

한 절을 일러 주시면서 그 책에 더 볼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셨도다.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勞其心志 苦其筋骨 餓其體膚 窮乏其囏行 拂亂其所爲 是故 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

53) 교법 1장 34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

54) 교법 1장 37절, "상제께서 경석이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심히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일찍 모든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풀어 버리라고 하였는데 어찌 지금까지 남겨 두었느냐. 금후 다시 생각지 말라」 하셨도다."; 교법 2장 16절,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

55) 예시 17절,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극적인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수도(修道)를 위한 규범이 주어지고 이를 지켜나갈 것이 요구되어진다. 차경석의 경우 분수에 맞지 않는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지침이 그에게 특별히 제시되어졌다. 이처럼 개인에게 특별히 제시되어지는 지침은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지침들이다. 예컨대 박공우에게 말씀하신 "광인이 되지 못하였으니 농판으로 행세함이 가하니라."[56]라든지 안내성에게 "부지런히 농사에 힘쓰고 밖으론 공사를 받드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안으론 선령의 향화와 봉친 육영을 독실히 하여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57]라고 지침을 내린 것 등이다. 이 각각의 규범들은 입문 과정에서 내려진 것은 아니나 각 개인에게 특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규범들도 결국 천지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임과 동시에 상생의 실천과 수도를 통해 인격적 성숙을 이루도록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차경석에게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규범이 주어진 것은 그가 가진 천자(天子)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58] 즉 이 규범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으나, 입문 과정에서 주어진 이 규범은 차경석 개인에게 특화된 규범인 것이다. 이 규범을 증산으로부터 부여받음으로써 차경석은 종도집단에 합류하는 통합의 과정을 일단락 짓게 된다. 물론 후천을 지향하는 공사의 과정에서 모든 종도들에게 주어지는 규범들이 많으며, 이 규범

56) 행록 4장 14절.

57) 행록 4장 44절.

58) 공사 2장 16절,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둘씩이나 원하느뇨」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 교운 1장 51절, "경석이 명을 좇아 여러 날 동안 자지 않았기에 지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문 앞의 모시밭 가에 이르러 잠에 취하여 혼미에 빠진지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천자(天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54절, "경석은 상제께서 재차 묻는 말씀에 「유방백세(遺芳百歲)를 못하면 유취만년(遺臭萬年)이 한이로다. 열지(裂地)를 원하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병부가 마땅하니라」 하시니 경석은 불쾌히 여기는지라. 상제께서 「병권은 직신(直臣)이 아니면 맡기지 못하므로 특히 너에게 맡기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들도 종도집단에 입문하여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다.

종도집단에 소속되어 이러한 규범의 준수와 주문(呪文)의 수련을 통하여 도통(道通)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도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됨으로써 입문자는 천지공사의 의례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 차경석의 입문의례의 과정은 다른 사회의 입문의례와 같이 과거 자신의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로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도집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간으로서 천지공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진멸지경에 처한 세계의 변혁을 증산과 함께 수행하고, 수도를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여 도통에 이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차경석을 포함한 입문자들이 종도집단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의례들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은 이에 준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경에 보이는 입문의례의 초기 모습은 무극도·태극도를 거쳐 대순진리회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 되어 갖추어졌다. 현재 '입도치성'으로 명명된 대순진리회 입문의례는 약 19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59] 각 단계의 상징적 의미와 전체적인 교의를 연구하여 밝힐 필

59) 이경원은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을 논하면서 입도치성의 절차를 19단계로 정리하고, 이 입문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간략히 제시한 바 있다.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9), pp.139-142 참조.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입문의례의 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한 현재의 입도치성의 의미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 대순진리회에 입문하여 수도하는 사람들은 '일꾼'[60]이 되는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여긴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증산께서 언급한 '나의 일'[61]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 '나의 일'은 천지공사를 통하여 삼계를 개벽하고 창생을 구제하는 일이다. 즉 일꾼이 된다는 의미는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일이며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성숙시켜 도통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산을 따르던 종도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하여 겪었던 입문의 과정에서 요구되어졌던 사항들은 현 대순진리회 도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증산에 대한 믿음, 소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대의를 추구함으로써 천지공사의 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상을 세우는 것, 과거의 허물들에 대한 반성과 개과, 천지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화하여 바르게 함, 상극적 습관으로부터의 탈피, 규범을 지켜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것 등 천지공사 당시에 입문하는 종도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내용들이 현대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60) 교법 2장 39절. 참조.
61) 천지공사와 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교운 1장 45절, 교법 1장 6절, 권지 1장 11절, 제생 17절, 예시 61절 참조.

【참 고 문 헌】

대순진리회교무부,『전경』, 대순진리회출판부, 2010.
대순진리회교무부,『대순지침』,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교무부,『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출판부, 2003.
『周禮』
『顔氏家訓』
『商子』
Anthony F. C.,『종교인류학』, 김종석 옮김, 충남: 도서출판 아우내, 2010.
Arnold van Gennep,『통과의례』, 김경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85.
Chtherin Bell,『의례의 이해』, 류성민 옮김,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L. K. Dupre,『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권수경 옮김, 서울: 서광사, 1996.
Victor Turner,『제의에서 연극으로』, 이기우 옮김, 서울: 현대미학사, 1996.
_____,『의례의 과정』, 박근원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김탁,「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김윤성,「통과의례와 젠더」,『종교문화비평』16, 2009.
김태수,「천지공사에 나타난 의례적 성격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문정호,「천지공사의 미의식적 이해」,『증산사상연구』2, 1976.
박상언,「퍼포먼스로서의 의례 읽기, 그 지점과 가능성」,『종교문화연구』9, 2007.
신재은,「한국 무교와 인도 따뜨리시즘 입사의례의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의의」,『비교민속학』19, 2000.
안선희,「빅터 터너의 의례이론의 예배 연구에의 적용」,『한국기독교신학논총』32, 2004.
유선영,「3.1운동 이후의 근대 주체 구성」,『대동문화연구』66, 2009.
이강오,『한국신흥종교총람』, 서울: 대흥기획, 1992.
장병길,『천지공사론』,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한상복・이문응・김광억 공저,『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홍범초,『범증산교사』, 서울: 도서출판한누리,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Entrance Rituals seen in the『Jeon-Gyeong』

Tae-Su Kim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天地公事) pursuing the Latter world(後天)'s ideal world while denying the Former world(先天) is composed of enormous rituals. The Dosu(度數) is formed through these rituals and the world is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Dosu. The people who follow the Sangje(上帝), the subject of this universe reordering and also participate in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 are called as the followers. The follower group can be said as a ritual group in the aspect that they participate in the ritual for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 They not only observed the rituals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m, so took certain roles in forming the Dosu. That is, they performed certain, given roles in developing the rituals, or actively proposed their ideas under the Sangje's leadership, and participated in the process realizing the Dosu.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y were a group initia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vercoming the Former world's Sangguk(相克) world, and making the latter world's ideal

world. It seemed that the followers at that time might have gone through a certain entrance ritual process in order to join in such a follower group. The『Jeon-Gyeong』recorded the entrance rituals of a man called as Cha Gyeong Seok among tremendous followers relatively in detail. According to the『Jeon-Gyeong』, he first had to get a unique test in the entrance process, and the test was proceeded in several stages: the wisdom test reflecting the Sangje's unusual intelligence, the patience test to endure physical, psychological pains for the great ethic, and the test to evaluate the testee's ability to give up past oneself and to follow the Sangje with a new body & mind. In the process separating himself from the past his appearance, Gyeong-Seok, the candidate to enter, faced a liminal situation, and then performed the incorporation rite. In this process, the purification rite going him out of the past relationship of benefits & grudges was performed, and he was given the regulations to comply as a member of the follower group. Through such serial processes, his entrance in the follower group was allowed.

What requested to the candidate in this entrance process was the severance from one's past. For that, the candidate was needed to go out of his past life habits, to free from the relationship of benefits and grudges, and to sever him from his past faults. Such severance was the precondition for him to go out of the Former world's negative reality and to break from the Sanggeuk habits. Another thing requesting to the candidate as well as the severance from his past was to establish a new ideal. The new ideal should be matched with the ideal of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 whose main ideology was the Haewon-Sangsaeng(解冤相生). Such

ideal can be said as the driving force to proceed toward the new ideal world of Latter World. And the candidate was requested to purify his mind and to participate in the Universe Fair Judgement (天地公庭). That can be said as an important condition for the new member directly to participate in the ritual of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 dramatically transforming the world.

Finally, the candidate was given the regulations for his ascetic practice(修道) as well as his participation in the Reordering, and was requested to comply them. After becoming a member of this follower group, one had to practice his asceticism through the compliance with such regulations and the training of mantras(呪文)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 called as Dotong(道通). By fulfilling these requirements, the newly entered member could have the qualification to perform a certain role in the ritual of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 and could accomplish his religious ideal.

Key words : The Reordering of the Universe(天地公事), Jeon-Gyeong (典經), Entrance Rituals, Cha Gyeong-Seok(車京石), Followers(從徒)

◎ 투 고 일 : 2014년 10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게 재 확 정 일 : 2015년 5월 21일